

“전남 권역별 경쟁력 강화...고른 발전을”

금지사 정례조회 “동부본부, 종합행정서비스 제공” 지방시대 주도·국고 확보·전국체전 성공 등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동부지역본부 2급 본부장이 신설된 만큼 맞춤형 종합행정서비스가 잘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동부 뿐만 아니라 서부, 중부, 북부 등 각 권역별로 고르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6월 정례조회를 통해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에 신설 예정인 균형성과담당관은 국가 균형발전 못지않게 전남 자체 균형발전도 잘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부지역본부 개편과 관련, 그는 “당초 언급했던 해양수산국을 남기고 일자리투자유치국과 문화융성국을 확대해 옮기도록 한 것은 기술 부서만 집중하지 않고 행정직을 충분히 배치해 종합행정서비스를 하고 시·군(동부권) 직원의 전입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부장이 총괄 조정 기능을 잘 수행하길 바라고 이전 직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권역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른 발전도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2개 시·군 모

두가 잘 사는 생명의 땅 전남, 첨단산업·문화 융성 융복합 사회로 미래를 활짝 열자”고 당부했다.

권역별 주요 발전 전략으로 ▲서부권은 광주-영암 아우토반을 가칭 대불산단대교와 연결해 목포까지 연결함으로써 서남권 관광의 새 판을 짜고, 목포 구도심-하당-남악-오룡 트램 황금노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또 ▲동부권은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광양만권의 첨단기업 수요 충족, 여수 청정수소산업 중심지 육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중

심지 육성 ▲중부권인 나주·화순·장흥 등에 에너지와 바이오 생물의약산업 육성 ▲북부권인 곡성·구례·담양·장성 등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내륙관광 거점도시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공식 출범 예정”이라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울산과, 부산, 경남에 이어 광주까지 끌어들이 3조원대 대규모 사업으로 키운 것처럼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면 중앙(위원회)에서 안 받아줄 수가 없으므로 우리 스스로 지방시대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독려했다.

이 밖에도 ▲2024년 국고예산 확보 총력 ▲전국체전을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민 감동체전으로 치르도록 안전·문화·숙박·음식·친절·전남 이미지 제고 맞춤형 홍보 등 추진 ▲조직 내 배이비부터 세대 퇴직 및 MZ세대 대거 유입에 따른 이해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 등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고부가가치 모델 제시...국내 정원산업 선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7일까지 순천만가든마켓

전남도는 지난 2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오전그린광장 일원에서 정원문화 확산과 고부가가치 정원산업 모델을 제시하는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 남성현 산림청장, 소병철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최영태 국립수목원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향우회 등 1만여명 이상이 함께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정원 관련 신제품, 신기술, 신상품 전시·판매와 고부가가치 정원산업 제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원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정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오는 7일까지 순천만가든마켓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선 정원식물과 물품을 전시하는 ‘정원산업전’, 정원 작가가 조성한 ‘코리아가든쇼’, 참여업체 물품을 활용한 ‘테라스정원’, 전국 반려식물 키트 관련 업체가 참여·출품한 ‘반려식물

키트존’, ‘토피어리정원’ 등을 선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글로벌 정원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며 “정원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온 힘을 다해 대한민국 정원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쉽게 정원을 찾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권역별 지방정원 9개소(등롱 1개소·조성중 8개소)와 민간정원 24개소를 지정했으며 정원 전문교육 등을 통해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정책에도 힘쓰고 있다.

또 소쇄원 등 정원 자원이 풍부한 담양에 ‘국립 한국정원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남해안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족형 미래 정원도시 구현을 위해 2027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해남에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일 오후 순천만 가든마켓에서 개막한 ‘2023 코리아가든쇼’ 행사장에서 남성현 산림청장, 노관규 순천시장 등 내빈들과 대화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姜시장, 북구서 ‘자치구 소통의 날’

주민 300여명 참석...체육시설·휴식공간 등 건의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일 북구문화센터에서 ‘자치구 소통의 날’을 열고 북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치구 소통의 날은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 특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타운미팅(주민 참여의 한 형태)로 공공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는 ‘북구를 부탁합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강 시장을 비롯해 문인 북구청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생활체육시설, 문화센터, 무장애 정류장 확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편의시설 조성을 주로 건의했다.

특히 무등산권 생태관광 방문객이 쉬어 갈 수 있도록 ▲무등산권 거점별 휴식공간 조성 ▲문화동·운암3동 열린 커뮤니티센터 조성 ▲일국

생활문화센터 건립 ▲화물공영차고지 조기 완공 ▲무장애 버스승강장 확대 조성 등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실·국장들과 함께 광주시정 방향을 밝히고 즉석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과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문인 북구청장은 “광주시와 북구의 정책방향은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했다”며 “어디서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민선 8기 광주시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전국 유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 세계가 인정하는 비엔날레가 있는 북구는 광주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라며 “광주시정 방향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있다. 시민 개개인의 삶을 돌보기 위해 북구와 손을 잡고 뚝뚝뚝 걸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백성강 기자

전남 ‘유기농산물 사용 식당’ 3곳 지정...전국 총 11곳

친환경 활성화 사업 모델 창출 기대

전남도는 지난 2일 무안 남악에서 유기농산물 소비 확대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유기농산물 사용 식당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새)전남친환경농업협회가 (새)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강용 (새)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유장수 (새)전남친환경농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후에는 무안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해 구수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오복진선향 품종의 유기농쌀을 함께 시식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식재료를 친환경쌀로 전환하는 우수 식당을 발굴해 ‘유기농산물 사용 식당’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 확대

와 지역 소비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활성화 사업 모델 창출에 힘쓸 방침이다.

전국 시·도 친환경농업협회가 추천하는 지역 식당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 4월 말 자체평가를 통해 전국 11개소를 선정했다. 전남에선 무안 삼향읍 복산황칠외(한식), 도담갈비(한식), 차민떡도리(한식·부페) 등 3개소가 유기농 쌀을 사용하는 식당으로 지정됐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일반쌀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유기농쌀을 사용하면 구매 금액의 30%, 무농약쌀은 15%까지 차액을 지원하며 시·도 지역당 1~2개소에 연말까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장수 회장은 “전남은 전국 유기농산물 인증 면적의 63%(2만4천697ha)를 차지하는 유기농 선도 지역으로, 식당 3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MG스크린파크골프 OPEN

전국 최초 8타석 완비!

- 파크골프 초보자 모집(무료 레슨) -

MG스크린파크골프 무료아카데미 운영
스윙자세 분석기 8대 완비!!

☎ 문의전화 : 061) 284-1144